

붓물 터진 노동쟁의 조정 신청

경기회복 기대감... 광주·전남 울들어 15건 전년비 50% 급증... 임금·복지개선 요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붓물을 이루고 있다. 3월에만 광주·전남에서 무려 9건이 접수됐다.

4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따르면 울들어 1월부터 3월까지 지노위에 접수된 광주·전남지역 노동쟁의 조정 신청 건수는 총 15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건에 비해 50%(5건)나 급증했다.

특히 3월들어 9건으로 급증했다. 1월과 2월엔 각각 3건이었다. 예년의 경우 하부(夏部·하계투쟁)를 앞두고 6~7월 노동쟁의 신청이 크게 늘어나는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3개월 가량 빨라졌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해왔던 노동계가 경제 지표가 호전되면서 임금 및 복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본부(3월16일)와 광주시립예술단(3월17일), 광주시도시철도공사 청소 용역 2건 등 공공기관 사업장의 노동쟁의 신청이 4건에 달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광주드림과 광주방송(3월25일) 등 언론사도 집단협과 관련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냈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조(3월14일)와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도 조정 신청을 했다. 특히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달 15일 조정 신청을 해 25일 지노위에서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졌지만 31일 또다시 조정 신청했다.

이같은 조정 신청에 대해 지노위는 조정 성립 4건, 불성립 1건, 취하 2건, 행정지도 4건 등의 결정을 내

렸다. 나머지 4건은 현재 조정 중이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연도별 노동쟁의 조정 신청 건수와 조정 성립률은 ▲2005년 61건, 48.0% ▲2006년 66건, 46.8% ▲2007년 86건, 61.7% ▲2008년 71건, 68.8% ▲2009년 55건, 48.9% ▲2010년 68건, 36.7% 등이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부터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크게 늘었다"며 "주로 공공기관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조가 집단협과 관련해 신청한 것으로 볼 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이 4일 오전 광주시 북구 북동 광주고용지원센터를 방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재완 고용 "복수노조 재개정 없다"

광주고용센터 방문서 밝혀...7월부터 예정대로 시행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4일 "복수노조 제도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노조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광주고용센터를 방문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도입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안착시키고, 오는 7월 시행하는 복수노조 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이는 로켓 발사에서 1단계 연료가 성공적으로 분리되고, 2단계 연료 분리가 추진돼 본 궤도에 진입하는 순간"이라고 비유했다.

박 장관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동관계법 재개정 요구에 대해 "복수노조는 시대의 흐름이고 인위적으로 막는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면서 "근로자에게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속박의 틀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행도 하지 않고 법률을 고친다면 정책 일관성이나 대의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13년 간이나 미뤄온 만큼 오는 7월 시행할 계획이며, 재개정을 전제로 한 대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박 장관은 광주지역 기업의 노사

문제에 대해 "광주는 2009년 대비 지난해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가 40%가량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며 "최근 금호타이어 사례처럼 지자체와 협력해 광주·전남을 노사평화지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 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목포대 대학청년고용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1일 만에 컨설턴트로 상담활동을 벌였다. 고용부는 전국 33개 4년제 대학과 11개 전문대학에 대학청년고용센터를 개소해 재학·졸업생에게 취업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작통中企' 공공구매 참여 제동

중기청 관련법을 개정... '위장 중기 대기업' 걸러내

중소기업청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지배를 받는 '위장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선다.

중기청은 4일 "일부 중견기업이 기업분할을 통해 중소기업을 설립한 뒤 공공구매에 참여하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 같은 편법행위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관조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9년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2012년부터는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면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일부에서 기업분할 등을 통해 대기업이나 중기

기업의 주주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한 채 공공구매에 참여하려 한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고 중기청은 전했다.

중기청 측은 "대기업 계열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면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순수 중소기업들의 추경기회가 현저히 낮아지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연구개발총괄 부회장에 양웅철씨

현대기아차는 4일 양웅철(57) 연구개발총괄 담당 사장을 부회장에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다.

광주·서울대를 나온 양 부회장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포드자동차 연구소 등에서 일하다가 2006년 현대차 전차개발센터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연구개발총괄 부부장을 맡아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지방조달청, 고철 6만t 전량 방출

광주지방조달청은 4일 철강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 고철(철스크랩) 6만t을 전량 방출한다고 밝혔다. 고철은 철근 등 철강제품의 주원료로, 국내 공급이 부족해 매년 1000만톤 가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또 알루미늄·구리·납 등 주요 비철금속도 시중가격보다 1~2%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알루미늄의 경우 2% 할인해 중소 제조업체는 t당 7만원 정도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이성남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일본 대지진과 중동사태 악화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원자재 수급난이 다소나마 해결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2,115.87 (-5.14)
코스닥지수	534.90 (+2.84)
금리 (국고채 3년)	3.68% (+0.01)
원·달러 환율	1,086.60원 (-4.5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스티커 부착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한신에서 열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시연행사에서 서울 변호사회 회장 오옥환 변호사(왼쪽에서 두번째), 영화배우 김정음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 건설경기도 '먹구름'

국내외 경제여건 불안 수주물량 0.5% 감소

건설경기 침체와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올해 건설경기에 먹구름이 짙어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4일 '2011년 건설경기 전망'을 발표해 올해 국내 건설수주가 지난해에 비해 0.5% 감소한 102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건설수주는 2007년 127조9000억원 이후 2008년 120조1000억원, 2009년 118조7000억원, 2010년 103조2000억원 등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국내 건설업은 토목 사업에서 크게 부진하고 건축 사업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관측된다.

토목 수주는 작년보다 15.9% 줄어든 34조8000억원에 그치는 반면 건축 수주는 9.9% 늘어난 67조9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건설연은 예측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청사 건립 발주에 힘입어 비주거용 건축 수주가 전년 대비 15.2%나 경증 뛰어오르겠지만, 주택 건축 수주는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도 시행 등의 영향으로 인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부진에 따라 4.7%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건설투자 예상액은 지난해 157조원에 비해 0.2% 줄어든 15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기아 쏘울 고객 풍성한 이벤트

수출 1000만대 돌파 기념

기아자동차는 4일 수출 1000만대 달성을 기념해 4월 한달간 쏘울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쏘울 쏘~솔~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화순 금호리조트·지리산 한화콘도 등 전국 31개 콘도·리조트·호텔을 회원 수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콘도 할인 이용권'을 제공하며, 오는 6월1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또 135만원 상당의 자동변속기를 무상으로 장착해 준다. 월 30만원대의 이용료로 쏘울을 장기 렌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80-200-2000)로 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스마트폰에서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보려면?

LOSE VS WIN

일반 홈페이지 vs 모바일 홈페이지

Tip. 일반적인 홈페이지는 컴퓨터 해상도에 맞게 제작되어 스마트폰에서는 콘텐츠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하나, 모바일 홈페이지는 스마트폰 해상도에 맞게 제작하여 편리함과 시인성을 극대화 합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문의
062-514-1144

모바일홈페이지가 꼭 필요합니다.

모바일홈페이지란?
모바일 홈페이지에 특화된 UI설계 및 디자인을 구현하여 QR코드 연동으로 쉽고 간편하게 소비자가 고객의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근 할 수 있게하는 온라인 홍보서비스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사례

ALL-IN-ONE SERVICE
온라인서비스는?
한국전화번호부 어플 검색과 모바일 홈페이지 그리고 QR코드를 연동한 다양한 인쇄마케팅 홍보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